

Vol. 20 No. 954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April 26 2024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시판 우유서 버드플루 바이러스 검출, 섭취 안전한가?

식품의약국 버드플루 검출 확인, 멸균 우유 위험 적어
지난해 말, 조류에서 소로 바이러스 감염, 남부서 확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버드플루가 급속하게 가족으로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식품의약국(FDA)은 시판 우유에서 버드플루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됐다고 24일 확인했다.

식품의약국은 이 시판 우유의 발견 장소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고열 멸균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비활성화 됐기에 섭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열 멸균 과정을 거치면 미생물은 거의 파괴되며 미국 우유제조사들 99%는 이 멸균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식품의약국의 발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샘플의 채집량, 채집 장소, 오염 우유 출처 등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

에 우려를 표했다. 보스톤글로브는 문답식으로 이를 알아봤다.

우유섭취 안전한가?

보스톤글로브와 인터뷰한 텡스 병원의 사이라 도론 박사는 우유섭취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멸균 과정이 버드바이러스인 H5N1을 제거한다는 구체적인 연구는 없지만 지금까지 다른 유사한 바이러스를 파괴한다는 것은 확인됐다. 도론 박사는 플루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이 바이러스가 소화기관을 통해 감염시킨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제니퍼 누조 브라운대 팬데믹 센터의 공중보건학 교수는 H5N1이 음식 ▶▶8면으로 계속



버드플루가 조류에 이어 야생동물 그리고 젖소까지 감염시키고 있다. 심지어 우유에서까지 버드플루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점차 사람 사이에서도 큰 유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콩코드 도서관, 5월 맞아 다양한 한국문화 행사 개최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주최로 5월 가정의 달 행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는 서예, 수묵화, 한국 전통 풍성한 한국문화로 구성된 한국 가정의 달 행사를 5월 한 달간 토요일 콩코드 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콩코드 도서관의 후원으로 5월 4일부터 31일까지 도서관 갤러리에서 정성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서예 교사와 제자들의 서예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 개막 리셉션을 5월 4일 (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가진 후에, 3시부터 4시까지는 강승연 씨가 한글 구성을 설명하며 조지훈의 승무

시에 맞춘 정성렬 작가의 한글 붓글씨 시현이 있을 예정이다.

5월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색종이 접기와 한글로 이름쓰기, 수묵화꽃그리기 등 어린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오애련, 안윤경, 김민희씨가 각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콩코드 음악원의 이소라 씨가 한국 전통 세마치장단, 한국 음악에 맞춰 몸의 움직임을 통하여 음악을 경험하는 유리쓰믹스(Eurhythmic) 등으로 구성된 율동수업을 한다. 이 수업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웹사이트 concordlibrary.org의 events calendar에서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다.

5월 25일 토요일에는 시카고 한국 전통예술원 사물놀이단 공연이 3시부터 야외에서 진행된다(우천시에는 실내에서 공연). 이에 앞서, 이 사물놀이단은 5월 23일 저녁 6시 보스턴 미술관서 한류 전시회 일환으로 공연하며, 24일 오후 2시반에는 브루클라인 도서관(컬리지 코너)에서 공연한다.

보스턴한미예술협회는 2015년부터 콩코드 도서관과 함께 주로 격년으로 가정의 달 축하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2024 보스톤 평통 통일 골든벨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회장 한문수)가 뉴잉글랜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 보스톤 협의회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를 6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 ECC Chapel에서 개최한다.

2024 보스톤 협의회 골든벨 퀴즈 대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중,고교생 5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며 한인 청소년 외에 보스톤 현지 미국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다.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 골든벨 대회에서 선발된 우승자 중 1-2명에게는 7월 16-18일에 예정중인 모국(한국) 방문 한류체험 및 해외 전체 우승자가 참여하는 본선대회(한국 개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스톤 협의회 골든벨 퀴즈 대회 참가자 최우수상에는 \$300(1명), 우수상에게 \$200(1명), 장려상 5명에게 \$100가 수여된다. 수상자 외 참가자 전원에게도 참가



상과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한문수 회장은 “보스톤 협의회가 올해로 7번째 개최하고 있는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가 보스톤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근대사를 배울 수 있게 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신청 접수는 6월 6일 오후 12시까지 bit.ly/4dq9gHR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Puacboston@gmail.com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시민협회 정치인턴모금만찬, 색다른 시도

에머슨 페러마운트센터서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미시민협회(회장 린다 챔피언)가 2024년 5월 14일 제 26차 정치인턴모금만찬을 에머슨페러마운트 센터에서 개최한다.

린다 챔피언 신임 회장은 기존의 정치 인턴 만찬의 형식에서 벗어나 차세대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호텔이 아닌 극장에서 열리며, 기조연사로는 정치인이 아닌 엄소윤 감독을 초대해 그의 다큐멘터리 영화 <리커스토어드림스>를 상영한다. 상영후에는 엄감독과 미국 한인 세대 간의 관점 차이, 이민사를 통한 정체성, 아메리칸드림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날 시민협회는 올해 선발된 6명의 정치인턴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턴들은 여름 방학 동안 매사추세츠 주요 정치인 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올해 지원한 20명중에 선발됐다.

양미아 이사장은 “차세대들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 많은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민협회가 바뀌어야 한다” 며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작년 정치인턴 장학생 모집에는 총 16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6명이 정치인턴으로 선발됐다

고 이메일 초대장을 통해 말했다.

한인들의 정치 참여 증진을 목표로 출발한 시민협회는 26년동안 100여명이 넘는 정치 인턴을 선발해 지원해 왔다. 시민협회는 2020년부터 2세대 임원진을 구성하면서 세대교체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임원진들은 린다 챔피언을 비롯한 2세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인 1세대들은 주로 이사진으로 포진하고 있다. 양미아 전회장은 이사장으로, 김성군 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자리를 바꿨다.

시민협회는 “차세대 리더의 양육을 위해서 1세대 한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26차 정치 인턴 모금 만찬 후원자는 Executive Producer(2000불), Director(1000불), Movie Star(500불), Star(250불), Critic(100불)으로 구성돼 있다. 후원 사업체나 개인 후원자는 당일 행사장과 소셜미디어, 에머슨칼리지 투데이에 홍보된다.

참가 신청 : <https://www.eventbrite.com/e/screening-of-liquor-store-dreams-tickets-884633060297>

일시 장소: Friday, May 17, 2024 from 6:30-9:30 PM EST at the Emerson Paramount Center (559 Washington Street Boston, MA 02111)

bostonkorean@hotmail.com

뉴욕서 무료 케이팝 댄스나잇 5월 4일 개최

뉴욕한국문화원 & 링컨센터 공동주최 5월 4일 7시 30분, 링컨센터 아트리움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욕한국문화원(원장 김천수)은 5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링컨센터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아트리움에서 무료로 '케이팝 댄스나잇'을 개최한다.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미국 빌보드 차트부터 브로드웨이 무대에 이르기까지 K팝 음악을 즐거운 댄스 파티 형식으로 소개한다.

음악 프로듀서이자 한인 디제이인 'ALTER KILO'(본명 데니얼 정)가 유명 K팝 및 신규 앨범을 중심으로 화려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ALTER KILO'는 현재 뉴욕의 유명 나이트클럽인 미션(Mission)의 레지던트 DJ로 활동 중이며, 2NE1의 민지, Yezep, ARMNHMR, ▶▶5면으로 계속



<K팝 댄스 나잇>을 이끄는 한인 DJ ALTER KILO(좌) & 뮤지컬 배우 리나 로즈 리(우)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 4면에 이어서

Ray Ray 등과 같은 아티스트와 함께 공연한 경험이 있다. 이번 링컨 센터 공연에서는 K팝과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혼합한 독특한 믹싱 스타일을 선보이며 독창적인 무대를 이끌 예정이다.

또한 K팝 댄서 리나 로즈 리(Lina Rose Lee)가 이끄는 최신 K팝 하이라이트 안무 강습 시간도 마련된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컬 배우인 리나 로즈 리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케이팝(KPOP)'을

통해 데뷔했으며, 약 1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 'KPOP IN PUBLIC' 시리즈로 인기를 끌고 있다.

케이팝 댄스나잇은 무료이나 선착순으로 입장이 마감된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원 웹사이트(www.koreanculture.org) 및 페이스북(@KoreanCulturalCenterNY), 인스타그램(@kccn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대한민국 제 22대 총선을 바라보며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주어진 이래 총선, 대선을 7번째 치루면서 미국에 있는 10개 공관 중에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보스턴은 언제나 유권자 등록율 또는 투표율 줄중 하나는 1등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유권자 대비 등록율 1위는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갔고 2위 뉴욕 총영사관에 이어 보스턴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2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미미해 1위와는 2.19%, 2위와는 0.1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은 반드시 1위를 하고자 목표를 세워놓고 각자 분담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투표율 70% 미주 1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2위인 시카고 총영사관에 비해 11%를 앞선 결과입니다.

그간 김재휘 보스턴총영사께서 주말에도 간식을 사서 투표소에서 일하는 선거관리 관계자들을 응원하는 등 좋은 결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NE 교역자 협의회 박도술 목사님께서 등록이나 투표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각 목사님들에게 2차례나 이메일을 보

내 주셨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조봉섭 교수님께서 열심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뉴잉글랜드 지역 동포 여러분들의 높은 정치 참여의식과 보스턴코리아의 많은 성원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기에 이 지면을 통하여 선거관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NE 동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이번 총선 평균 투표율은 67%로 32년만에 최고 높은 투표율이었으며 가장 높은 투표율은 세종시로 70.02%였습니다. 보스턴과 비교하면 0.02% 차이입니다.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3년 후 대선 때에는 이번 총선에서 미국했던 점을 더욱 활성화하여 유권자 대비 등록율이나 투표율이 미주내에서 1위를 하고자 합니다. 4월 18일 목요일 기록을 남겨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 6개월동안 수고하셨던 선거관리위원회를 해단 하였습니다.

주 보스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장 남궁연
부위원장: 박진영
위원: 이현경, 윤성근, 오은희, 간사: 김범준, 서기: 조상래 배상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턴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공사들, 항공편 취소 및 장시간 지연시 자동 환불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항공사들은 올 하반기부터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스케줄이 장시간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자동으로 티켓 가격을 환불하게 된다.

미 교통부가 24일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미국 국내 및 국제 여행에 대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보다 쉬운 환불 절차와 항공사의 환불 정책 통일을 목표로 제정됐다.

2020년 팬데믹 이후, 항공편 취소 및 지연 관련 소비자 요청의 87%가 거절당하거나 환불이 지연되었다고 교통부는 밝혔다.

피터 부티지 교통부 장관은 “승객은 항공사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선은 출발 또는 도착시간이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지연된 '중대한 비행 시간 변경'이 발생한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1등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등 좌석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보조수단이 제공되지 않고 연결 항공편이나 공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환불이 이루어진다.

-승객의 짐이 분실되거나 도착 후 12시간 내에 배송되지 않을 경우 가방 체크인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비행 거리에 따라 15시간에서 30시간 내에 짐이 도착해야 한다.

-항공기 내 와이파이나 엔터테인먼트를 구매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교통부는 승객이 현금이나 결제했던 수단으로 즉각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티지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환불 규정이 약 6개월 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 사우스웨스트항공사가 200만 승객을 운송하지 못했을 때 1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hsb@bostonkorea.com



2024재미과기협 아트 컨테스트 개최

K-12 학년까지 참여, 4/27까지 참가 신청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손용호)는 미국에 거주하는 K-12학년들을 대상으로 제 2회 Art Contest를 개최한다. KSEA는 차세대가 꿈꾸는 미래의 꿈과 비전을 시각화 하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과 상상력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부터 Art Contest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작품을 제출하는 Art Contest의 주제는 “Sailing around our new world” 로 먼저 Art Contest의 주제는 “Sailing around our new world” 로 먼저 성된 작품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미국에 거주하는 K-12학년 학생이다. 신규 회원은 <https://www.ksea.org/signUp>에서 연회비(\$35)를 지불하고 가입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4월 27일까지 마감이며, <https://art.ksea.org/registration>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메일로 작품 사진을 제출할 수 있는 링크를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1인 당 1개의 작품만 jpg, png, bmp 이미지로 제출하면 된다. 손으로 그린 그림만 제출할 수 있고 디지털 이미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작품 제출 마감일은 5월 5일이며,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5월 18일에 거행된다.

작품은 K-2 (Elementary division 1), 3-5 (Elementary division 2), 6-8 (Middle division), 9-12 (High division)의 4개 그룹으로 심사되며 각 그룹별 전국 수상자들에게는 1등 \$300, 2등 \$200, 3등 \$100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Camille World Virtual Gallery (<https://www.ohhh-inc.com>)에 전시된다.

▶ 참가 신청 : <https://art.ksea.org/registration>

▶ 행사 웹사이트 : <https://art.ksea.org>

▶ KSEA 회원 가입 : <https://www.ksea.org/signUp>

▶ 프로그램 문의 : steam.ksea@g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중은치과, 중은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유에스뉴스 선정, 2024년 매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 순위

2024년에도 MA 공립고 미국 최고 학군 입증
매사추세츠 44%의 고교가 미국 상위 25%에 들어
매사추세츠 우수고교, 2위 커네티컷과 격차 줄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미국 고교 순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립학교는 미국 내 최고 학군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US뉴스는 미국 내 약 24,000개 고등학교를 검토하여 17,600여개 고교의 순위를 매겼으며, 이 중 매사추세츠 고등학교 44%가 미국 고등학교 상위 25% 내에 위치해 미국 내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순위에 포함된 351개 학교 중 154개 고교만 상위 25%에 선정돼, 지난해 348개 학교 중 164개 고교가 상위 25%에 선정됐던 47.1%에 비해 3% 하락했다. 커네티컷은 43%가 상위 25%에 들어 매사추세츠 주를 바짝 쫓고 있으며 뉴저지주도 42%로 견실한 공립교육 시스템을 보유했음을 보였다.

전국 순위 100위를 살펴보면, 보스톤 라틴이 지난해보다 50계단 상승해 전국 순위 27위에 올랐으며, 파이어니어밸리 차이나이스 이머전스쿨은 지난해보다 크게 밀린 전국 순위 100위에 턱걸이하면서 매사추세츠 2위에 자리했다.

이어 매사추세츠에서는 렉싱턴하이(전국 192위), 말보로의 어드밴스드매스앤사이언스아카데미 차터(전국 228위), 하이애니스의 스티지스 차터(전국 235위), 락스베리의 존 오브라이언트 수학과학교(전국 236위)

), 합킨턴 하이(전국 250위), 도버셔 본 하이(전국 288위), 보스톤라틴아카데미(전국 308위), 액튼박스보러하이(전국 319위)가 10위 안에 들었다.

차터스쿨과 마그네틱스쿨의 상위 순위 약진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두드러졌다. 또한 지난해 30위권에 들지 못했던 치코피의 햄든 차터, 윌리엄스타운의 Mt. 그레이락, 웨스트브로하이, 밀튼하이, 그리고 노스보로의 알콘 리저널 하이가 30위권으로 진입했다.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는 최근 특히 대학 순위 산정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는 대학의 부유함과 명성을 반영하는 기준이 과다하게 순위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하버드와 예일 법대는 유에스뉴스 순위 산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일부는 이 순위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했다.

유에스뉴스는 이 같은 가까운 지적을 의식해 지난해부터 순위 산정에 있어 불우환경 학생, 흑인과 라티노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점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12학년의 AP, IB 시험 성적을 통한 대학 준비도, 각주별 학력 평가 성취도, 불우환경 학생 대비 주별 학력평가 성적, 흑인, 라티노, 저소득층

성적, 대학 커리큘럼 채택 정도, 졸업률 등 6개 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 순위를 선정했다.

유에스뉴스는 순위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교 순위 산정은 "부모들에게 학교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자녀들이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장래 학교에 대한 전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교육 환경과 장래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유에스뉴스는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라틴은 유에스뉴스가 선정한 2024년 고교순위에서 매사추세츠 1위, 전국 27위에 선정됐다

2024 US News순위		2023 US News순위	
1. Boston Latin School	27	1. Boston Latin	50
2. Pioneer Valley Chinese Immersion Charter School, Hadley	100	2. Pioneer Valley Chinese Immersion Charter School, Hadley	57
3. Lexington High School	192	3. The Bromfield School, Harvard	154
4. AMSA Charter School, Marlborough	228	4. Sturgis Charter School, Hyannis	179
5. Sturgis Charter Public School, Hyannis	235	5. Dover-Sherborn Regional High School	189
6. John D. O'Bryant School of M & S, Roxbury	236	6. Lexington High School	221
7. Hopkinton High School	250	7. AMSA Charter School, Marlborough	253
8. Dover-Sherborn Regional High School	288	8. Belmont High School	290
9. Boston Latin Academy	308	9.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338
10. Acton-Boxborough Regional High School	319	10. Weston High School	355
11. Wayland High School	321	11. Mystic Valley Charter School, Malden	402
12. Weston High School	328	12. Boston Latin Academy, Dorchester	403
13. Medfield Senior High School	338	13. Hopkinton High School	439
14. The Bromfield School	343	14.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Everett	472
15. Mystic Valley Regional Charter School, Malden	353	15. Wellesley High School	539
16. Belmont High School	383	16. Medfield Senior High School	545
17. Manchester Essex Regional High School	461	17. John D. O'Bryant School of M & S, Roxbury	568
18.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Everett	463	18.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2, Saugus	606
19. Westford Academy	504	19. Needham High School	656
20. Concord Carlisle High School	539	20. Westwood High School	671
21. Norwell High School	558	21. Cohasset High School	672
22. Pioneer Charter School of Science 2, Saugus	605	22. Sharon High School	678
23. Winchester High School	610	23. Groton Dunstable Regional	683
24. Hampden Charter School of Science, Chicopee	614	24. Wayland High School	696
25. Mt Greylock Regional High School, Williamstown	639	25. Concord Carlisle High School	711
26. Needham High School	680	26. Norwell High School	714
27. Westborough High School	686	27. Westford Academy	727
28. Wellesley High School	703	28. Manchester Essex Regional High School	756
29. Milton High School	727	29. Winchester High School	759
30. Algonquin Regional High School, Northborough	768	30. Excel Academy Charter School	770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시판 우유서 버드플루 바이러스 검출, 섭취 안전한가?

▶▶1면에 이어서

물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 외에 논외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소화기 경로를 포함한 다른 장기에 발견됐다. 즉, 소화기관을 통한 대형 플루발생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으나 이것이 감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판 우유에 함유됐나?

버드플루에 감염된 소로부터 비롯됐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마이클 워러비 애리조나대 생물학과 교수는 239개의 H5N1 서열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는 바이러스가 지난해 말경 새에서 소로 감염체를 옮긴 것으로 보이며, 이후 번이를 통해 소

와 소 사이에서 전파됐을 것이나, 이 같은 전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누조 박사에 따르면, 농장의 소들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 주 경계선을 넘어 전역으로 퍼졌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는 우유 가공 시 사용하는 기계들이 바이러스를 분사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확실한 것은 버드플루가 가축으로 감염체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며,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플루는 일부 감염된 소에서 무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소를 죽게 하거나 우유생산이 급격히 감소시키기도 한다.

매사추세츠에서 감염된 소는 얼마

나 되나?

4월 24일까지 미 농무부는 캔사스, 아이다호, 미시간, 뉴멕시코,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8개 주의 소에서 버드플루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직 매사추세츠에서는 가축 감염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버드플루 감염은 어떻게 시작됐나?

버드플루는 주로 조류를 감염시킨다. 지난 1996년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이 플루는 6천만 마리의 조류를 사망케 했다. 사람의 감염은 비교적 드문 편이었다.

현재의 버드플루인 H5N1 종은 2020년 유럽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수백만 마리의 야생조류 등을 살상시켰

다. 2022년 여름 포유류에도 전이되어 수만마리의 물개와 바다표범을 살상시켰다. 이 플루는 고양이, 야생 동물, 스컹크 등에서도 발견됐으며 지난 2월 에섹스 카운티 야생조류에서 발견됐다. 에섹스 카운티에서는 야생 캐나다 거위들이 죽은 것이 보고되기도 했다.

H5N1은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하나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텍사스 농장에서 한 근로자가 감염됐으나 결막염(핑크아이) 등 가벼운 증세만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염자의 사망률은 거의 6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사람사이에서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유전자 변이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장근로자들이 마스크 등 보

호장비를 착용해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밝혔다.

H5N1 진단 방법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나?

일반 플루 검사를 통해 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으나, 병원은 이 플루가 H5N1인지 따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도론 박사는 일반 항바이러스제는 버드플루에도 효과적일 것이지만 현재의 플루백신은 이를 막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유전자 서열은 이미 분리되어 있으며 현재 최소한 2개의 백신 후보물질이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감염이 발생하면 백신 생산이 바로 가속화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브루클라인 주유소에서 크레딧 정보탈취 장치 발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브루클라인 주유소에서 크레딧 정보 탈취 장치인 크레딧 스키머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최근 브루클라인의 주유소를 이용한 한인들은 크레딧 및 은행 계좌에 이상한 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브루클라인 경찰에 따르면 이 스키머는 주유소 편의점 판매대 크레딧카드 장치, ATM, 그리고

주유기 크레딧카드에 설치됐다. 경찰은 이 주유소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크레딧카드 정보 탈취 장치에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크레딧카드 기계를 스캔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소개했다. HC-05 등과 같은 스키머 코드가 뜨면 이를 경찰 등에 알려야 한다.

hsb@bostonkorea.com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매일 7분! 뱃살 빠지는 복근운동 루틴



과식이나 야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양조절이 안될 때, 부쩍 식욕이 올라 자꾸 군것질을 찾게 될 때, 다른 곳보다 유독 뱃살이 나와 고민일때 등등 집에서 따라하기 좋은 초간단 복근 운동 루틴 알려드려요. 운동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쉬운 옵션부터 숙련자들을 위한 레벨업 옵션도 함께 드릴게요. 물론 오늘 알려드릴 운동과 함께 밖에 나가 산책이나 가볍게 뛰는 등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 체중감량 효과는 배가 되겠지요? 제 유튜브 채널(yoga songhayeon)에 최근 업로드한 7min DAILY CORE & ABS영상을 찾아해보시면 되구요, 제 한국어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에도 같은 시퀀스로 한국어 설명으로 진행해 업로드했으니, 두 영상 모두 참고해 주 3-4회 이상 꾸준히 따라해 꼭 뱃살 감량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1. Curl Up : 상복부 운동

1단계 두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머리 뒤에 깎지 끼고 가슴을 들어올립니다.
2단계 들숨에 올리고 날숨에 내리는 운동을 10회 이상 반복해주세요.



3단계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확인, 자극에 집중해봅니다.

4단계 영상을 참고해 하고 잠시 휴식합니다.

TIP! 목의 긴장감을 최대한 풀고 복부의 힘으로 올라오도록 주의합니다.

2. Back Roll : Sit UP전 워업 운동, 허리마사지 효과

1단계 등을 대고 누웠다가 허벅지나 무릎을 잡고 올라옵니다.

2단계 숙련자들은 앉은 상태에서 두 발을 바닥에서 떼고 중심잡기를 시도합니다.

3단계 허리를 숙이지 말고 척추를 곧게 펴고 버팁니다.

4단계 초보자들은 발끝을 바닥에 대고 중심



잡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TIP! 내쉬는 숨에 복부의 힘으로 올라와 버텼다가 천천히 코어의 힘을 컨트롤하면서 내려가도록 합니다.

3. 티저 변형 : 복근 강화 및 자세 교정

1단계 먼저 영상을 참고해 다리 뒷면 즉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해주세요.

2단계 앞에 했던 워업에서 써졌던 코어의 힘을 최대한 사용해 두다리를 뻗어 올립니다.

3단계 허리를 곧게 펴고 손으로 발목이나 다리를 잡고 버텨보세요.

TIP! 두다리를 잡고 다리 뻗는게 힘들다면 두 무릎을 접고 버티는 연습을 충분히 해준 후, 코어의 힘과 하체의 유연성이 좀더 향상된 후, 다리를 뻗고 중심을 잡도록 시도합니다.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강사로부터 실시간 '자세교정' (1:1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혹은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TALK YOGAFULLNESSLIFE

@YOGASONG_HAYEON

CONNECT@YOGAFULLNESS.LIFE

WWW.YOGAFULLNESS.LIFE

하버드대 새 총장 롬니 상원의원?... 민주 상원의원도 지지 가세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반유대주의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한 하버드대 총장 후임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롬니 연방 상원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2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 졸업생으로서, 컬럼비아대에서 불고 있는 이미 친 반유대주의 광풍 뒤에 나는 (하버드대 총장으로 롬니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페터먼 의원은 "전직 매사추세츠 주지사 출신인 이 사람은 월급이 필요 없겠지만, 하버드와 그 학계 동료들은 극좌 정통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페터먼 의원은 롬니 의원을 하버드대 총장에 추천한다는 지난 16일자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기고도 첨부했다.

미 유대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니얼 로즌은 해당 기고에서 "나는 평생 민주당원이었고, 롬니가 2008년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에 도 그에 투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가 하버드를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개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실하고 강력한 믿음에서 이 제안을 한다"며 롬니를 총장으로 추천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같은 추천에 하버드대와 롬니 의원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가자 전쟁 이후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인 하버드대는 올해 1월 그 여파로 클로딘 게이 전 총장이



MIT 롬니 미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 의원

논문 표절 의혹 논란 끝에 사임한 뒤 총장이 공석이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동부 명문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이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여 옷을 벗었고, 현재까지 명문대를 중심으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 컬럼비아대가 캠퍼스 안팎에서 벌어진 시위로 재학생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 체포된 뒤 전체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했고, 예일대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인 학생 60여명이 체포된 바 있다.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롬니 의원은 하버드대 출신으로 헤지펀드계 거물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 등과 함께 모교의 반유대주의 움직임에 일찌감치 비판적 목소리를 내 왔다.

공화당 원로인 롬니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첫 탄핵 투표에서 공화당 인사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며, 의회 폭동 사태 이후 두 번째 투표에서도 일부 동료들과 함께 역시 찬성 대열에서는 등 공화당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 중 한 명이다.

kyunghee@yna.co.kr

다양성 지우는 미국기업들...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여파

WSJ, 미 증권거래위에 제출된 기업 연례보고서 분석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그간 다양성을 강조해온 여러 미국 기업이 지난해 연례보고서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을 언급하는 문구를 삭제 혹은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 수십 개 기업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지난해 연례보고서(K-10)를 분석한 결과 DEI와 관련한 내용이 지워지거나 축소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미 유명 백화점 체인 '볼스'는 2020~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다양한 리더'(diverse leaders)를 양성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이라는 문구를 지웠다.

미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는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직원의 50%를 소외 계층 출신으로 채용하고 40%를 여성 혹은 '논바이너리'(non-binary·스스로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규정하는 사람)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수치를 뺐다.

인사 및 재무 관리를 지원하는 미 기업 워크데이도 2020년 연례 보고서에서 직원 가운데 30%를 흑인과 라틴계로 채우고 이들을 인종의 리더 수를 2배 늘리겠다고

적었지만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미 연방 대법원이 대학교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해당 판결이 내려진 직후 공화당 소속 일부 법무장관은 미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에 서한을 보내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인종에 따른 특혜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국 일부 보수 진영은 이전부터 DEI가 능력주의에 어긋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반발해왔다.

WSJ도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소수자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을 겨냥한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DEI 프로그램이 법적, 정치적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기업이 다양성 확보와 관련해 균형 잡힌 정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펀드평가회사 모닝스타 소속 애널리스트 린제이 스투어트도 "최근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정치적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hanju@yna.co.kr

성 안토인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COMPASS

Achieved in 2023

\$25M+

TOTAL SALES

40+

TOTAL # OF TRANSACTIONS

I've helped 41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4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Honors:

- 2022, 2023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Achieved top-ranked (#1) solo agent status at Compass Cambridge Office, demonstrating top performance in sales and client satisfaction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 List
- Hosted the Boston episode of 'The American Dream', a national TV show, highlighting Boston's real estate, and lifestyle to a nationwide audience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대학들 팔레스타인시위 격화...일부에선 시위대 체포·강제해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가자 전쟁과 관련, 미국의 일방적인 친이스라엘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재점화한 시위는 동부를 넘어 중부, 서부 지역 대학으로 번지면서 24일(현지 시간) 한층 더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뉴욕 컬럼비아대를 방문해 이 대학 총장에게 시위대를 해산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AP통신과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동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학 내 반전 시위가 최근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시위가 벌어지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측의 요구로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거나 체포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커녕 학생과 시민들의 반발만 유발해 동조시위에 나서는 참가자들이 늘고 있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는 이날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된 직후 기마대를 포함해 진압봉 등 진압장비를 갖춘 텍사스주 경찰이 캠퍼스에 들어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고 많은 학생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경찰이 텍사스대에서 시위대를 몰아가며 해산시키는 영상을 게시한 뒤 "체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군중이 해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 시위자들은 감옥에 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의 모든 공립대학에서 증오로 가득 찬 반유대주의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쫓겨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하이오주립대도 캠퍼스내 학생들의 시위 도중 2명이 체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학교 대변인은 "어제 시위가 다른 학생들과 교수진, 교직원에게 방해가 됐고 학교는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다"며 "방해 행위가 계속돼 2명이 체포됐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생 시위대가 있는 곳에 대학 경찰을 계속 배치할 방침이다.

뉴욕대에서는 지난 22일부터 학생들이 설치한 시위 텐트가 늘어나고 수백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뉴욕경찰은 이 캠퍼스에서 시위대 133명이 연행됐으며, 무질서 행위 혐의로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뒤 풀려났다고 이날 밝혔다.

브라운대에서는 이날 오전 90여명의 학생이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 대학 대변인은 학생들이 대학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의 에머슨대에서도 80여명이 전날 캠퍼스 안뜰을 점거한 뒤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보스턴 경찰은 법 집행 조치가 임박했다고 경고했



다. 하버드대는 시위에 대비해 지난 22일 대부분의 출입문을 잠그고 학교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을 제한했다.

미네소타대에서는 전날 경찰이 도서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9명이 연행됐다. 이후 학생들은 연행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예일대에서도 지난 22일 시위대 48명이 텐트 농성 해산을 거부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미 서부에서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에 전날까지 30개의 시위 텐트가 설치됐고, 이날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도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학교 측 안전 요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학생들이 저항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또 경찰이 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해 연행하려고 하자 시위대가 경찰차를 둘러싸고 석방을 요구해 결국

경찰이 이 학생을 풀어주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주 뉴욕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격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컬럼비아대에서 시위가 8일째 이어진 가운데 시위대와 이를 해산하려는 학교 측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측은 전날 자정까지 해산하라고 최종 시한을 통첩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주 네마트 사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이 철수 요청을 거부한 시위대를 해산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커졌고, 경찰은 지난 18일 100여명을 무더기로 연행했지만 이후 더 많은 텐트가 들어섰다.

학교 측은 이날 학생 시위대 중 상당수가 텐트를 철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학생 시위대 측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학교 시위대는 또 "우리의 평화 시위에 대해 대학이 법 집행기관을 부르지 않겠다는 양보를 얻어냈다"며 학교 측과의 협상 시한이 48시간 연장됐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컬럼비아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피크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존슨 의장은 "우리는 캠퍼스에서 이런 종류의 증오와 반유대주의가 번성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는 오늘 동료들과 함께 사피크 총장이 이 혼란을 즉시 수습하지 못한다면 사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존슨 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큰 소리로 야유를 보냈다. 이처럼 이번 시위에 정치권이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태가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환 교외이비인후과
www.junghwan.co.kr
www.junghwan.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의의료시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머스크 '저가 신차 · 로보택시 장담'에 테슬라 주가 12% 급등

성장성 정체 우려 달래... "투자자들 희망의 불꽃 갖게 돼" 신차 가격대 등 비공개에 일부 회의론도 남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행 로보택시(무인택시) 개발이 진척되고 있다고 밝힌 뒤 주가가 급등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12.06% 오른 162.13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오전 한때는 16.1%(167.9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주가 낙폭이 42%에 달했지만, 이날 반등하면서 연중 낙폭이 35%로 줄었다.

시가총액도 이날 증가 기준 5천164억달러(약 711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테슬라는 전날 실적 보고서를 통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9%, 5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률은 5.5%로 1년 전(11.4%)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잉여현금흐름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매출과 주당순이익(EPS)(0.45달러)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보고서에서 "기존 공장 생산라인을 활용해 새롭

고 더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포함한 수익성 있는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콘퍼런스콜에서 "이전에 2025년 하반기 생산을 시작한다고 언급했던 새 모델 출시를 앞당겼다"며 이 신차 출시가 "올해 말은 아니더라도 2025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또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으로 지칭하며 "에어비앤비(숙박공유 플랫폼)와 우버(차량 호출 플랫폼)의 결합 같은 것으로, 테슬라가 직접 차들을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누군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런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고, 이미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올해 말에 테슬라 공장에 배치해 유용한 업무를 하게 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이르면

올해 말 저렴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테슬라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투자회사 뎀워터애셋 매니지먼트의 진 먼스터는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내년에 성장이 다시 가속할 것이라는 희망의 불꽃을 갖게 됐다는 것"이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경로를 유지할 충분한 근거를 줬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투자 플랫폼 XTB의 연구원 캐슬린 브룩스는 "새 모델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로 나온 게 없지만, 머스크의 움직임은 영리하다"며 "그것은 마이너스 현금흐름과 높은 수준의 자본 지출을 정당화한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분석팀은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테슬라의 1분기 실적과 경영진의 논평이 주요 우려들을 해소하고 성장 서사를 되살렸다"며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테슬라는 전날 현재 준비 중인 신차가 기존 모델보다 더 저렴하다(affordable)고만 밝혔을 뿐, 예상 가격대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신차가 투자자들이 그동안 기대해온 2만5천달러(약 3천444만원) 수준의 전기차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맥널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단지 새로워진 모델3·Y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다"며 투자 등급 '보유'를 유지했다.

투자은행 UBS 분석팀도 "우리는 테슬라의 기존 라인업으로 성장이 제한적이며 신차가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명확성도 부족하다고 본

다"며 목표주가를 160달러에서 147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점점 더 자율주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의 단기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초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폐기한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온 뒤 테슬라가 전체 사업장 인력의 10%(1만4천명) 이상을 감원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 22일 15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자살률 낮아지고 미세먼지 줄었지만...OECD 회원국 중에선 최고

성폭력 발생 건수 26% 증가...100명 중 3명, 음주운전 경험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노령화지수, OECD 다섯번째로 높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 넘게 늘었으며, 만 19세 이상 국민 100명 중 3명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

◇ 자살률 감소 추세지만... OECD 평균의 2배 이상

2022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3.2%) 감소했다.

자살률은 2013년 28.5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남자 자살률은 35.3명, 여자 자살률은 15.1명으로 각각 0.6명(1.7%), 1.1명(6.4%) 감소했다. 여자의 자살률이 더 크게 감소하며 남자의 자살률을 밀돌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1명이었다. OECD 평균(10.7명)의 2배 이상으로 유일하게 20명을 웃돌았다.

◇ 미세먼지 농도도 OECD 회원국 중 1위

미세먼지(PM2.5) 농도도 세계적으로 높았다.

OECD가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국가별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25.9 $\mu\text{g}/\text{m}^3$ 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미세먼지 농도가 20 $\mu\text{g}/\text{m}^3$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칠레(24.2 $\mu\text{g}/\text{m}^3$)와 튀르키예(22.6 $\mu\text{g}/\text{m}^3$) 뿐이었다.

우리와 근접한 국가인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0 $\mu\text{g}/\text{m}^3$ 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26.1 $\mu\text{g}/\text{m}^3$ 에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 이용이 감소하고 사업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개선되는 추세다.

◇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26% 늘어

2022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4만1천433건으로 1년 전보다 25.9%(8천535건)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80.5건으로 16.8건(26.4%) 증가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7년까지 대체로 늘다가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1만4천908건), 통신매체 이용음란(1만605건), 강간(6천17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촬영물이용 협박 등 디지털 범죄 증가에 기인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로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 월간 음주율 반등...100명 중 3명은 음주운전 경험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율은 반등했다.

지난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월간 음주율)은 2022년 54.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월간 음주율은 2015년 58.7%에서 2016년 59.4%로 높아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6년 만에 반등했다.

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음주율은 66.9%로 0.2%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자 음주율이 41.2%로 1.3%포인트 높아졌다.

감소하던 음주운전 경험률도 정체되는 모습이였다.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사람의 비율은 2022년 3.3%로 1년 전과 같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만5천59건으로 165건(1.1%) 늘었다.

통계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노령화지수, OECD 다섯번째로 높아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지난해 21.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독거노인 비율은 2013년 18.4%에서 2018년 19.3% 등으로 지속해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맞물린 결과다.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167.1로 집계돼 OECD 회원국 중 다섯번째로 높았다.

encounter24@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APR. 26th - MAY 2nd,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TREAT YOURSELF WITH TAKOYAKI

One of the most popular Japanese street snacks around, takoyaki, or grilled octopus balls, is a must-try!

겉바속촉, 고소한 반죽에 쫄깃한 문어가 들어간 맛있는 타코야끼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weet Potato 고구마 10 LB/BOX \$17.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Sand Pear 샌드 배 LB \$2.9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LB \$2.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inger 생강 LB \$2.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틀포 망고 BOX \$14.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U.S.D.A. CHOICE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8.99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2.99
Frozen Smoked Duck 훈제오리 SLICED/LB \$19.99	Marinated Pork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5.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SANFORD FISHMONGER Frozen Mussels in the Half Shell 반칸홍합 2 LB/PKG \$11.99	Headless Black Tiger Shrimp 머리없는 블랙 타이거 새우 16-20'S/LB \$7.99
Frozen Yellow Croaker with Roe 알배기 조기 300-400'S/LB \$4.99	SEAFOODS SNACK Mala Flavor Grilled Squid 씨푸드 스낵 마라맛 오징어 1.76 OZ/PKG \$2.49
SUHYUP Frozen Cleaned Mackerel 수협 순살고등어 11.28 OZ/PKG \$5.99	Fresh Catfish 메기 LB \$1.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NONGHYUP Yecheon Korean Rice 농협 예천 일품쌀 22 LB \$24.99	H MART SMART CARD ONLY Hadong Premium Rice 하동 첨진강쌀 22 LB \$24.99
H MART SMART CARD ONLY KWANGCHEON Kakao Friends Ryan Crispy Seaweed + Shopping Bag 광천 카카오 프렌즈 재래김 (장바구니 포함) 0.17 OZ X 27 EA + BAG/PKG \$10.99	H MART SMART CARD ONLY DAESANG O'food Cold Noodles with Spicy Sauce 대상 오후드 매콤달콤 비빔냉면 13.1 OZ \$3.99

OTTOGI Jin Ramen 오뚜기 진라면 SPICY/MILD 4.23 OZ X 18 EA/BOX \$11.99	SAMYANG Buldak Spicy Chicken Flavor Ramen Big Bowl 삼양 불닭볶음면 ORIGINAL/HABANERO LIME 3.7-3.88 OZ X 6 EA/BOX \$8.99	PALDO Bibim Men Oriental Style Noodles 팔도 비빔면 4.58 OZ X 5 EA/PKG \$4.99	SEMPIO Soy Sauce 샘표 진간장 S/금 RICH & MELLOW/RICH & DELICATE 57.48 FL OZ \$4.99	HAIO Premium Sesame Oil 해오름 참진한 참기름 56 FL OZ \$16.99
PULMUONE Plantspired Korean BBQ Style Plant-Based Steak 풀무원 식물성 숯불고기 CHARCOAL GRILLED/SPICY/SWEET 14 OZ \$6.99	HAMPYEONG Nabigol Eel Soup 함평 나비골 민물 장어탕 1.1 LB \$3.99	PULMUONE Rice/Wheat Flour Cakes for Toppoki 풀무원 쌀/밀 떡볶이떡 22.9 OZ \$2.99	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 OZ 2\$7	HAITAI Oh! Yes Chocolate Coated Cake 해태 오예스 11.88 OZ 2\$7
HAIO Milkya (Cream Soda & Yogurt Flavored Soft Drink) 해오름 밀키야 8.45 FL OZ X 6 CANS/PKG \$3.49	MOGU MOGU Aloe Vera Drink 모구모구 알로에 베라 드링크 LEMON/GRAPE/LYCHEE 10.82 FL OZ X 6 EA/PKG \$1.99	Flower Cash Gift Box 플라워 용돈 선물박스 -19.99\$ \$13.99 EA	KOTO Rice Cooker (Flower) 코토 플라워 전기 밥솥 5 CUPS -31.99\$ 10 CUPS -39.99\$ \$21.99 EA	Hansil Flower Cover Pillow 한실자수 이중커버 베개 ORANGE/PINK/BLUE \$24.99 EA

UNTIL MAY 2, 2024

JINGA
양념깻잎

SEASONED SESAME LEAVES
Every Body's Favorite Banchan!

~~8.99~~
\$4.99

9 OZ/PKG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1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hyk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 617.447.0501 mi@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ju@bostonpremierrealty.com	 장희 978.866.3248 hee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인주 401.538.3397 ryee@bostonpremierrealty.com
 박소 617.338.0787 s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김수진 617.528.6973 su@bostonpremierrealty.com	 민소 213.503.0347 so@bostonpremierrealty.com	 박지 413.507.1400 jipark@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88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진 617.877.0387 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선 781.836.3412 sunny@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장희정 617.915.1162 heej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중국 617.543.0728 jung@bostonpremierrealty.com	 박희 404.641.9192 heepark@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정혜민 박 201.446.8995 m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mik@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의대교수 사직효력 발생 첫날...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어"

사직서 제출 시작 한달 맞아... "시간 지나면서 점차 늘어날 수도"
교수들, 사직서 효력 발생 놓고 법률 자문하기도
정부, "이탈 규모 크지 않을 것"... 두려운 환자들 "제발 남아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반면,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까 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리 예정인 사직서가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두 달 넘게 풀리지 않는 의정(醫政) 갈등을 지켜보는 환자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 '빅5' 병원 "뚜렷한 움직임 없어"... 시간 흐르며 점차 나타날 수도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

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이날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

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되고 밝힌 바 있다.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안요한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무 종료 시점을 '8월 31일'로 잡았다. 돌보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해 이후 쭉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수들, '사직서 효력 발생' 놓고 법률 자문하기도

이처럼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른 데다,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직서가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

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여서 가지고 있으면서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의대 학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의 효력을 놓고 법률 자문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받은 쪽에서 '미개봉'으로 익명 상태라, 유효성이 있는지 지문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성대의대 사직서 효력은 내달 1일부터 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비대위는 사직서를 의대에 접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됐다고 보고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 규정에 따라 (교수들이 떠나는 시점은) 대부분 오는 30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사직서 제출 규모 크지 않다"... 환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떨어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으며,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대학 본부 소속으로 병원 진료와 대학 강의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로 불리지만,

병원에만 소속된 교수는 병원장에 사직 의사를 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한 달간 대학 총장과 병원장에 실제 사직서를 낸 교수가 전체의 7% 상당인 800여명에 불과하다거나, 대학 본부에 접수한 건 80명 정도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장 진료와 수술을 눈앞에 둔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이 이미 수술을 절반 이상 줄였고, 외래도 20~30%가량 축소된 상태에서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질 경우 의료공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주부터 시작되는 대형병원의 '휴진'도 환자들의 불안을 부채질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와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각각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한다. 연세의대 교수비대위의 경우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의대 교수비대위도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환자들은 교수들을 향해 현장에 남아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jandi@yna.co.kr





통일의 골든벨

2024 해외 청소년



보스톤 협의회

대회일시

2024년 6월 9일 일요일 3:00-6:00(PM)

장소

Korean Church of Boston, ECC Chapel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참가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중, 고등학생 5th-12th
(초등학생, 대학생 제외)

※ 성적에 따라 한국(모국)방문 한류체험 참가자격 부여
(단 최근 3년내 통일골든벨 입상을 통한 한국 초청행사
참석 경험 있는 학생제외)

대회 참가 신청

- 접수방법 bit.ly/ 4dq9gHR 링크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2024년 6월 6일 목요일 12:00(PM)까지
- 접수문의 Puacboston@gmail.com
401.935.9506

시상내역

- 최우수상 \$300 (1명)
 - 우수상 \$200 (1명)
 - 장려상 \$100 (5명)
- (참가상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 및 기념품 증정)



죽음 앞둔 세상 그린 '종말의 바보'... "독특한 디스토피아물"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지구와 소행성 충돌까지 200일. 눈앞에 예고된 종말을 앞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종말을 마주한 사회 안의 다양한 인간군상을 담아낸 넷플릭스 새 시리즈 '종말의 바보'가 오는 26일 베일을 벗는다.

주연을 맡은 배우 안은진은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에서 진행된 '종말의 바보' 제작발표회에서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엔딩이 너무 인상 깊어서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일본 작가 이사가 코타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종말의 바보'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고, 한반도가 충돌지대에 들어간다는 보도로 아수라장이 된 한국을 배경으로 한다.

안은진은 종말을 기다리면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학교 기술 가정교사 진세경을 연기한다.

소행성 사태 발발 후 학교가 휴교하자 웅천시청 아동청소년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위해 남은 시간을 살기 시작한다.

안은진은 "세경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밖에 없다"며 "아이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함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종말의 바보'는 소행성의 충돌을 막거나, 지구를 구하는 등 종말을 다뤘던 여느 작품들과는 달리 대재앙을 마주한 인간이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여전히 선생님이어서 아이들을 지키고, 군인으로서 시민들을 지키고, 함께 먹어야

채를 기르는 등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안은진은 "주연 캐릭터뿐 아니라 웅천 시민 한명 한명이 살아있다"며 "이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 들여다보면 큰 울림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인간수업', '마이네임' 등을 만든 김진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김 감독은 "'종말의 바보'는 독특한 디스토피아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흔한 생존과 투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지 묻는 작품이라고 느꼈다"며 "제가 만든 작품 중 가장 철학적"이라고 웃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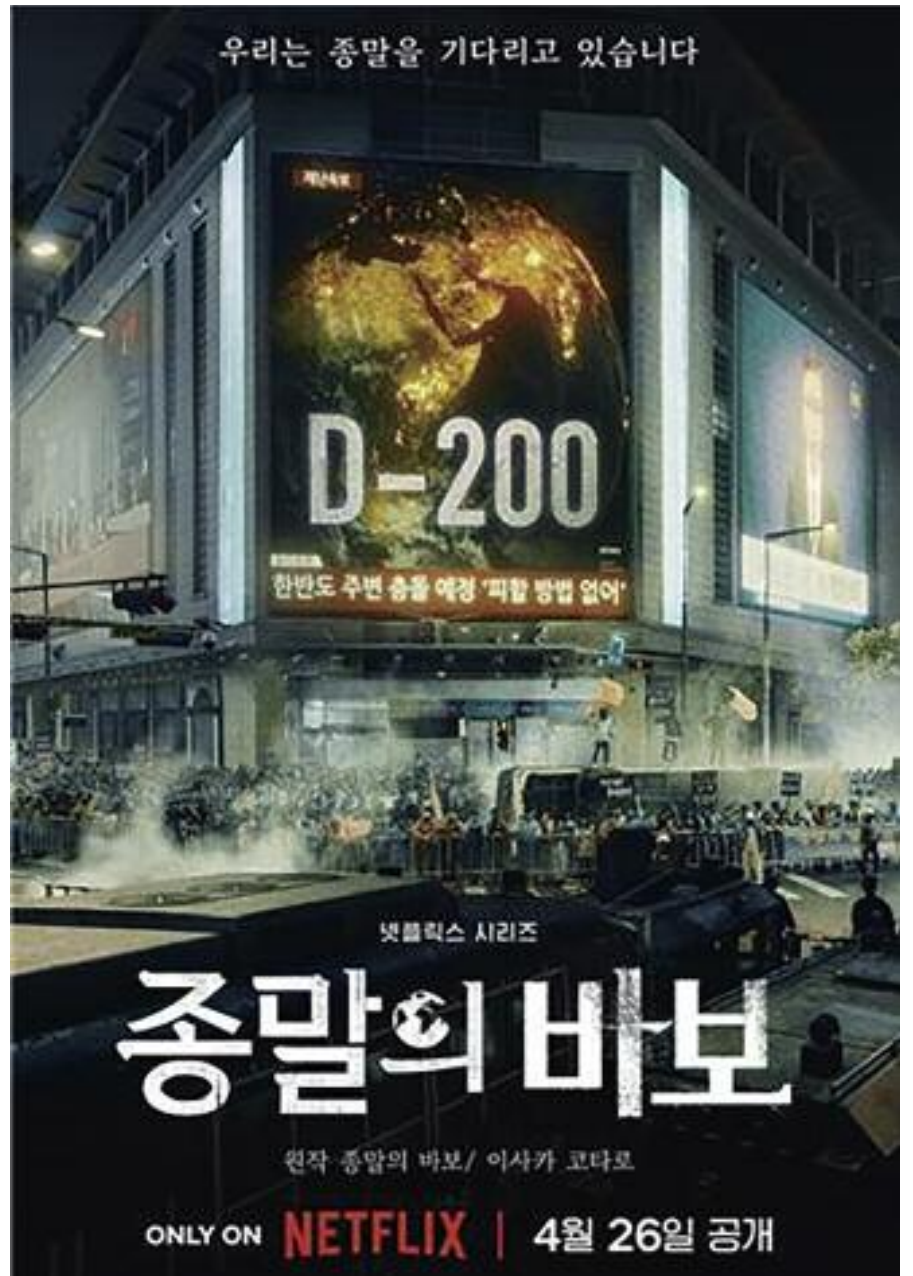
'종말의 바보'는 원래 지난해 공개 예정이었지만, 주연 배우 중 한 명이었던 유아인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공개일이 미뤄졌다.

유아인은 세계의 오랜 연인이자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인 하윤상을 연기하며, 작품에 그대로 출연한다.

김 감독은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편집했고, 유아인씨 분량도 손을 댔지만, 이야기의 큰 축을 차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예 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열심히 만들었고 돌을 맞은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충돌지대인 한국에서 도망가지 못했거나, 도망가지 않는 선택을 내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구 구하는 영웅 얘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는 선택을 내린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coup@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merchant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연례 모금 만찬 파티에 초대합니다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APRIL 27, 2024 (SAT) 6PM

FRANCO AMERICAN CLUB
W Prescott St. Westford, MA 01886

TICKET: \$80.00 PER PERSON

평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회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86) 목전에 다가온 은퇴 준비

안락하고 편안한 은퇴를 누구나 희망한다. 그러나 은퇴 계획은 시장의 변동성, 의료 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항상 난관에 부딪힌다. 여기에 은퇴자는 고정 수입으로 수십 년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은퇴를 목전에 둔 일반인은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하여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

1. 은퇴 재무 계획을 검토

은퇴하기 전에 생활비, 의료비, 사회보장연금, 여행비, 등을 고려한 후 은퇴를 준비한다. 재정적인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은퇴 전에 남아있는 빚을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 소득이 비용을 초과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확인해 봐야 은퇴 시점을 미리 조절할 수 있다. 은퇴한 후 나이 들어 살아있는데 은퇴자금이 하나도 남지 않는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2. 은퇴 자금 최대 투자

은퇴 전 몇 년은 대부분 수입이 가장 많을 때이다. 정부가 허락하는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큼 세금 유예를 받으며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24년 50세 이상이면 직장인은 \$30,500까지 은퇴 플랜에 투자할 수 있다. 자영업 하는 사람도 부부가 각자 \$8,000 불씩 투자할 수 있다.

3.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비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것처럼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으면 은퇴 기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어뉴티 투자 등으로 받는 연금은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액수이다. 은퇴자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한 재투자로 최소 물가 상승만큼 불어나야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4. 사회보장 연금 수령 결정

사회보장 연금을 62세부터 받으면 정상은 퇴 나이(Full Retirement Age)되어 받는 액수보다 약 30% 감소한다. 일찍 죽을 수 있다, 연금이 없어진다, 등의 이유로 일찍 수령하기 시작하면 감소한 액수를 2,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받아야만 한다. 요즘 의료 기술 발전

등으로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훨씬 더 길다.

5. 의료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2년 평균 65세 부부는 은퇴 후 건강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약 \$315,000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만성적인 건강 상태나 보장 범위 선택에 따라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메디케어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별도로 건강보험이 필요하다. 메디케어를 받는 나이에 은퇴하면 의료보험의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은 재정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6. 자식들 재정 도움

자녀들 집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다운페이먼트, 비즈니스 시작,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식들을 돕기 위해서 소중한 은퇴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자금이 많은 적은 목돈이 빠져나가면 일을 다시 하기 전까지는 보충할 수 없다. 부모가 은퇴하는 동

안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면 자식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7. 저축에서 지출로 관점 전환

평생 일을 하고 저축했지만, 은퇴하게 되면 소비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평생 검소하게 생활했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감정 변화이다. 평생을 저축한 은퇴자금에서 수입은 없고 곳감 빼먹듯이 소비하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지기 때문이다.

8. 은퇴 후에도 계속 재정을 유지할 계획이 필요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새롭게 더 투자할 자금이 없다고 해도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제대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으로 수입이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은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만큼 노후 대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2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생은 조부(調府(공물貢物과 부역賦役 등 재무를 담당하던 부서)의 업무는 당(唐)과 만(萬)에게 맡겨놓고 수 많은 자식들과 함께 유희하였다. 심지어 그는 조부의 관청으로 출근할 때도 수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놀다가 퇴청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조부령'으로 부르는 대신 '호아령(護兒令)'이라고 불렀다. 그는 수많은 처첩으로 부터 낳은 아이들 사랑함이 남달라, 비록 잘못이 있어도 나무라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또한 미생은 효심도 깊어서 어머니 묘도를 자주 찾았는데 그때마다 백여명의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갔다. 그러니 노모는 손자들의 어머니를 구별할 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누가 피를 물려받은 손자인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 미생과 닮지 않은 아이들을 지적하여 "이 아이의 어디가 너와 닮았느냐?"고 묻기가 한탄반사였다. 번번히 미생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찾아서 닮은 바를 대답하며 아이들을 감싸주었다.

미생은 관청에서도 아랫사람을 책망하지 않았기에 관리들은 모두 그를 좋은 재상이라며 따랐다(그는 609년 예순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588년, 미생이 이어 미실의 장남 하종(夏宗)이 11세 풍월주에 올랐다. 하종은 미실이 남편

세종과 낳은 아들인데도, 하종의 외모가 사다함을 닮았다며, 당시 세간에는 사다함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그러나 미실과 사다함의 관계를 따라가 보면 하종이 사다함의 아들일 개연성은 거의 없다. 애초 미실은 사다함의 연인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사해를 뒤덮을 만큼 깊고 넓었다. 그러다가 561년 춘(春) 계절에 미실은 지소태후(진흥왕의 모후)의 부름을 받아, 지소의 아들 세종전군(아버지는 태종이다)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소태후의 계책을 사도왕후에게 '고변'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출궁을 당했다. 그 사건은 다름아닌 지소태후는 자신의 딸 숙명공주(아버지는 태종이다)를 진흥왕의 왕후로 책봉하여 자신의 인통인 진골정통으로 인맥을 이으려고 한 것이었다. 즉 지소는 자신의 아들 진흥왕과 딸 숙명공주를 부부로 삼으려고 했었다. 그들은 이부동복 남매간이다. 게다가 진흥왕에게는 이미 왕후 사도가 있었다. 사도의 부모는 박영실과 옥진으로, 옥진은 미실의 외조모이고, 미실의 어머니 묘도가 옥진의 딸이니, 사도왕후는 미실의 이모이다. 즉 미실은 이모에게 왕후 폐출과 숙명공주의 새 왕후 책봉 계획의 비밀을 알려준 댓가로 그만 지소태후의 노여움을 사서 출궁당했다. 그때를 561년 여름으로 추정한다.

출궁을 당한 미실은 옛 연인 사다함에게로 돌아가 서로 못다한 사랑을 나누며 결혼까지 약속하였다. 한편 갑자기 미실을 잃은 세종은 식음을 전폐하며 앓아 누웠고, 그의 눈에는 미

실의 환영만이 보일뿐이었다. 이에 지소태후는 미실을 다시 불러 입궁시켰다(당시를 561년 9월 ~ 10월 경으로 추정한다).

561년 9월(삼국사기에는 56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흥왕은 이사부에게 가야를 정벌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사다함도 출정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당시 미실은 사랑하는 연인 사다함을 전장으로 보내며 그녀의 애틋한 마음을 노래로 불러 전송한 것이 '풍랑가(風浪歌)' 또는 '송출정가(送出征歌)'로 화랑세기에 전한다.

561년(삼국사기의 기록으로는 562년이다)에 모든 가야연맹국들이 멸망한 것으로 보아, 사다함은 동년 승전고를 울리며 귀국하였다.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 미실은 지소태후로 부터 다시 입궁하라는 명을 받았고, 이미 세종의 부인이 되어 있었다. 불과 수주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사다함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였고, 이에 부른 엘레지(哀歌)가 '청조가(靑鳥歌)'이다. 이 역시 화랑세기에 실려서 전한다.

사다함은 561년 어느날 사(死) 무관(無)의 죽음으로 식음을 전폐하며 그를 애도하다가 죽었다. 아마도 동년 10월 ~ 11월로 추정할 수 있다. 미실의 아들 하종은 갑신생으로(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564년생이다. 결과적으로 하종은 사다함의 아들이 될 수 없다. 화랑세기(6세 풍월주 세종조)에도 사람들이 하종이 사다함을 닮아서 사다함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미실은 사다함이 죽자) 천주사(天柱寺)에서 사다함의 명복을 빌었다. 그날 밤 과연 미실이 꿈을 꾸었는데, 사다함이 품에 들어오며 말하기를 "나와 내가 부부가 되기를 원했으니, 너의 배를 빌어 내어날 것이다" 했다. 이에 (미실이 세종) 공(公)에게 말했다. (세종) 공 또한 이상하게 여겼다. 바로 임신이 되어 하종 공을 낳았다. 하종은 모습이 사다함과 심히 비슷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혹 사다함과 정을 통할 때에 임신을 하고서 입궁하여 낳은 아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다.〉

하종이 588년에 풍월주에 올랐으니 그의 나이 24세였다. 하종의 부모는 세종과 미실이다. 세종의 부모는 태종과 지소태후이다. 태종의 부모는 아진종(지증왕의 동생)과 보옥공주(백제 개로왕의 딸)라고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소지왕과 벽아부인(날이군 파로의 부인이었다가 소지왕이 그들의 딸 벽화와 함께 500년 왕궁으로 데려왔다)이 태종의 부모라는 설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또한 태종(이사부)은 삼국유사에서는 박이종(朴伊宗)으로 등장한다. 내물왕의 4세손이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아 화랑세기에 기록된 아진종의 아들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더 얻는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PR. 25th - MAY 2nd, 2024



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바나나맛 우유

6.8 FL OZ X 24 EA/PKG

FREE GIFT!
바나나맛우유 콜드컵
WHILE SUPPLIES LAST

~~Reg. \$24.99~~ **LIMIT 2**

\$18.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범죄도시4' 마동석 "진화 안 할 거라면 1편 찍고 말았을 것"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편마다 진화하지 않을 거라면, 1편만 찍고 말지 시리즈로 만들 필요 없다고 예전부터 말해왔습니다."

18일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역 마동석은 "1~4편 모두 조금씩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한편 최대한의 재미를 살린 엔터테인먼트 영화를 선보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마동석은 각본부터 제작, 주연까지 맡아 이 시리즈를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로 만들었다. 오는 24일 개봉하는 4편 역시 그의 아이디어와 시나리오에서부터 출발한 작품이다.

'범죄도시 4'는 괴력의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특수부대 용병 출신 백창기(김무열)의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소탕하는 이야기다. 통쾌한 액션과 유머, 세밀해진 스토리로 최근 열린 시사회에서 호평받았다.

마동석은 "원안을 제가 쓴 뒤 작가에게 보내면, 작가는 그걸 바탕으로"

각본을 쓴다. 감독이 이를 유색한 다음 제게 주면 다시 각색하는 과정을 몇 차례나 거친다"면서 "오히려 촬영하지 않을 때가 더 바쁘다"며 웃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정의로운 경찰 마석도가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당을 흠뻑 두들겨 패준 뒤 체포하는 스토리를 큰 줄기로 한다.

모두 비슷한 구성이지만, 마동석은 각기 다른 성격의 사건을 다루고 액션 스타일도 달리하면서 조금씩 변주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편에선 좀 더 드라마틱한 요소를 녹였기 때문에 액션도 그전에 맞춰 큰 타격 위주로 보여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동석은 '범죄도시'를 8편까지 기획 중이다. 지금도 5~8편의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다음 편에선)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사건을 다룬다"면서 "다채로운 상황이 많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액션물 안에서 변주를 주지 않

으면 제가 지루해서 못 한다"는 그는 "스스로 재밌다고 느껴야 의욕도 솟아난다"고 강조했다.

'범죄도시 4'는 개봉까지 6일이 남았지만, 예매 관객 수 24만명을 넘기며 상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 영화 사상 첫 '트리플 천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범죄도시' 1편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도 688만명의 관객을 모았고, 15세 관람가인 '범죄도시 2'(1천269만명)와 '범죄도시 3'(1천68만명)는 모두 천만 영화 반열에 들었다. 세 작품의 누적 관객 수는 3천만명을 넘어선다.

마동석은 1천만 돌파에 대한 부담감이 없느냐는 물음에 "제작진의 목표는 손익분기점인 350만명"이라고 담담히 답했다.

"손익분기점만 넘기면, 천만 관객이 안 되더라도 프랜차이즈를 이어갈 수 있어요. (천만 영화가 안 돼서) '범죄도시' 약발 떨어졌네' 생각하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하. 영화는 재밌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요. 영화가 재밌으면 관객도 재밌게 봐주실 거고, 스킵어(관객 수)도 그에 걸맞게 나오겠지요."

그는 예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했다. 할리우드에는 '007'이나 '다이하드' 같은 시리즈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까 생각했다고 한다.

마동석은 "꿈만 꿨다가 그 꿈을 이루게 되니 감사할 뿐"이라면서 "전 세계 무술 배우들이 나오는

할리우드 시리즈도 공동 제작하려고 기획 중"이라고 귀띔했다.

"'범죄도시'가 한국적인 시리즈긴 하지만, 액션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통할 수 있는 장르라 생각해요.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청룡(성룡) 같은 액션 배우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쪽을 따라가지 않고 제가 잘하는 분야를 하는 것에 대해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이나 리메이크 제안도 많이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4월 28일 - 5월 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행운이 함께 하고

- 운수: 현실을 직시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죽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는 격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행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갈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 4일 길일, 28, 3일 주의.

소띠 |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 운수: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 금전: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익이 앞서거나 너무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9, 30일 길일, 28, 4일 주의.

범띠 |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 운수: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해서 소식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심기일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금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씹어먹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군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나 간직해오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8, 3일 길일, 29, 30일 주의.

토끼띠 | 시아가 환해지면서

- 운수: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 보세요. 해결점을 찾고 뜻밖의 좋은 결과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 금전: 기본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본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애정: 뿌연게 가려져 있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아가 환해지면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8, 29일 길일, 30, 4일 주의.

용띠 |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 운수: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지만 크게 문젯거리가 되는 일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30, 2일 길일, 28, 1일 주의.

뱀띠 |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 운수: 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요. 모처럼 온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여러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 4일 길일, 29, 2일 주의.

말띠 | 짚고 넘어가야

- 운수: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지갑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심이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짚고 넘어가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

양띠 | 부지런히 노력해야

- 운수: 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 금전: 돈이란 없다고 없고, 있다라고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3일 길일, 28, 1일 주의.

원숭이띠 | 활기를 찾게 되는

- 운수: 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대부분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전회회의 기회가 찾아오고 애정 문제에서도 화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4일 길일, 29, 2일 주의.

닭띠 | 서로 마음이 합쳐지니

- 운수: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결과도 끌어올 것입니다. ● 금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니 의견도 통합니다.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는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 4일 길일, 30, 3일 주의.

개띠 |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 운수: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능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 금전: 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 애정: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 기본에 빠져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 3일 길일, 1, 4일 주의.

돼지띠 |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 운수: 심신이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거나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과 말을 주고 주고 용호를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 금전: 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용용이 되겠지만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못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치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0, 3일 길일, 2, 4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8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9/1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7/14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과거로 돌아간 '수사반장 1958'...이제훈 "휴머니즘에 초점 맞춰"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요즘 처럼 차가운 시대에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드라마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배우 이제훈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새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제작발표회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겪어내는 캐릭터의 성장을 지켜이 담아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19일 처음 방송된 '수사반장 1958'은 배우 최불암 주연의 '수사반장'보다 10여 년 앞선 1958년을 배경으로 청년 박영한이 반장이 되기 전 이야기를 다룬다.

이제훈이 연기한 소도독 검거 전문인 시골 출신 박영한 형사는 서울에서 만난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뭉쳐 부패 권력을 깨부수고,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난다.

이제훈은 "'수사반장'에서 최불암 선생님이 보여주신 정신과 마음을 그대로 계승해서 박영한이라는 인물을 잘 만들 고자 했다"며 "박영한을 화가 많은 인물로 묘사해줬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연기했다"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무모해 보이고,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범인을 잡고 싶은 집념이 넘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촬영하면서 이번만큼 화가 많이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웃음) 전에도 형사 역할은 몇 번 맡은 적 있지만, 박영한은 나쁜 놈들을 혼내주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캐릭터였습니다. 전작들에서 보여드린 냉철하고 분석적인 이미지와는 차별점이 크다고 생각해요"

CCTV도 없이 오로지 타고난 감각과 통찰력, 집요함으로 범죄를 해결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수사반장 1958'은



아날로그 수사의 낭만과 유쾌함을 살려 낼 예정이다.

이제훈은 "아날로그적인 스토리를 1958년도 배경으로 보여준다면 특별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며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수사반장'을 보신 분들께는 추억할 수 있는 재미를 전해드리고, '수사반장'을 못 보신 분들은 옛날 '수사반장'이 궁금해지는 재미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웃음)"

동료 3인방 역에는 배우 이동휘와 신인 배우 최우성, 윤현수가 나선다.

중남경찰서의 '미친개'라고 불리는 김상순을 연기한 이동휘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수사반장' 영상들을 찾아보게 됐는데, 당시 선배님들의 연기가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련됐다고 느꼈다"며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촬영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에스파, 내달 데뷔 4년만 첫 정규앨범... "다중우주로 세계관 확장"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에스파가 다음 달 27일 첫 정규음반 '아마겟돈'(Armageddon)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이번 앨범은 에스파가 데뷔 4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규음반으로, 에스파만의 콘셉트와 정체성을 녹여냈다

SM은 "새 음반은 한층 깊어진 에스파의 음악 세계와 메시지로 꽉 채워진 다"며 "리얼 월드(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넘어 다중 우주로 확장하는 에스파 세계관 시즌 2의 서사까지 담겼다"고 소개했다.

에스파는 2020년 '블랙맘바'(Black Mamba)로 데뷔해 '넥스트 레벨'(Next Level), '새비지'(Savage), '스파이시'(Spicy)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걸그룹 열풍을 선도했다.

에스파는 정규음반 발매에 앞서 다음 달 13일 더블 타이틀곡 가운데 하나인 '슈퍼노바'(Supernova)를 공개한다. 이후 27일 음반을 발매하고 또 다른 타이틀곡 '아마겟돈'을 내놓는다.

이번 정규음반에는 두 타이틀곡 외에도 힘 있는 힙합, 밝고 경쾌한 댄스곡, 리듬감 있는 모던 팝, 발라드 등 다채로운 10곡이 담겼다.

tsl@yna.c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3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유안진 님의 '지란지교를 꿈꾸며' 시편을 온종일 가슴에 담고..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입은 웃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흥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 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영원이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 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 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론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관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

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정이라 하면 사람들은 관포지교를 말한다. 그러나 나는 친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듯이 나 또한 끝없는 인내로/배풀기만 할 재간이 없다. 나는 도를 닦으며 살기를 바라지 않고 내 친구도 성현 같아 지기를 바라진 않는다. 때로 나는 얼음 풀리는 냇물이나 가을 갈대 숲 기러기 울음을 친구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우정을 제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흰 눈 속 참대같은 기상을 지녔으나 들꽃처럼 나약할 수 있고 아침 같은 양보는 싫어하지만 이따금 밀리며 사는 아량도 갖기를 바란다. 우리는 명성과 권세, 재력을 중시하지도 부러워 하지도 경멸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보다는 자기답게 사는데 더 매력을 느끼려 애쓸 것이다.

우리가 항상 지혜롭진 못하더라도,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진 않을 것이다.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니기를 바란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애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되, 미

친 듯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 같아서 요란한 빛깔도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나는 반닫이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며,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 아침 창문을 열다가, 가을 하늘의 흰구름을 바라보다가, 까닭 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며, 그도 그럴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는 때로 울고 싶어지기도 하겠고 내게도 울 수 있는 눈물과 추억이 있을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추억이 있으나, 늙는 일에 초조하지 않을 웃음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눈물을 사랑하되 헤프지 않게, 가지는 것보다 풍기는 멋을 사랑하며 냉면을 먹을 때는 농부처럼 먹을 줄 알며, 스테이크를 자를 때는 여왕보다 품위 있게. 군밤을 아이처럼 까먹고 차를 마실때는 백작보다 우아해 지리라.

우리는 풍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 나무처럼 일생을 즐겁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모

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격려하리라.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특별히 한 두 사람을 사랑한다 하여 많은 사람을 싫어 하진 않으리라. 우리가 멋진 글을 못 쓰더라도 쓰는 일을 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듯이, 약점도 안쓰럽게 여기리라.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의 꽃을 사서 그에게 들려줘도 그는 날 주책이라고 나무라지 않으며 건넌목이 아닌 데로 찾기를 건너도 나의 교양을 비웃지 않을 게다.

나 또한 더러 그의 눈에 눈곱이 끼더라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숙녀 됴이나 신사다움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유유함을 느끼게 될 게다.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려나, 여로를 버티어 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피주는 불빛이 되어 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홀연히 오테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壽衣)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코끝이 췌해지고 웃깃 세우는 11월에 서서 온종일 유안진 님의 시편을 가슴에 담고..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독고다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양아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날 말인게다. 누구는 이말은 獨固多異라 현대판으로 재해석했다. 혼자자기를 고집하며 많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독불장군과는 다르다만, 그럴듯 하다 여긴다.

독고다이를 사전에서 찾았다. '주위의 일엔 무심하고, 홀로 행동하는 것, 또는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 외톨이라는 느낌인데, 왕따와는 어감이 다르다. 나한테 독고다이라면 얼핏 고독이란 말을 연상케 한다.

하늘을 낮게 나는 매를 본적이 있다. 녀석은 뭔가 먹이감을 발견했을 것인가. 무리 없이 오직 혼자만 유유히 날고 있으니, 말 그대로 독고다이 인게다. 김남조 시인이

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
(김남조, 설일궛日 中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나올 법하다. 야생 늑대들은 떼지어 움직이고 사냥한다. 독고다이는 없는데, 팀으로 여럿이 협력/협동하며 살아가는 거다. 늑대는 미국영화에도 나온다. 늑대와 함께 춤을(Dance

with Wolf)이다. 그 늑대는 분명 외로운 늑대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보스톤은 바닷가에 있다. 언제 가봤던가 가물거린다. 이 봄엔 바닷 내음을 한번은 맡고 바닷바람을 쐬어야겠다. 가는 빗발이라도 날리면 낭만스러울 수도 있겠다. 혼자 갈텐데, 바다가 나에게 가르칠 게다. 그래, 기다려 봐. 시간이 문제야.

영풍하게 바울이 떠올랐다.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그 세인트 바울이다. 그 역시 따돌림 당하던 독고다이가 아니었을까?

저말메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 14:23)

몇해 전이다. 한국에서 저명한 정치인이 자신에 대해 술회했다. 자신은 혼자인 '독고다이' 이지 만 정계와 사법계를 누비며 요직

을 두루 거쳤다고 자랑했던 거다. 독고다이. 점잖은 말은 아닌데 어릴적 친구들과 장난삼아 나누던 단어이다. 뭔가 색다른 듯한데,

한류를 넘어 역사를 마주하다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미주 추념식

Beyond Hallyu (Korean Wave)
Commemorating the 76th Anniversary of the Jeju April 3rd Incident and Exploring Its Collective Trauma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미주 추념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4월 27일 (토) 오후 5시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무료 주차 가능: 타운 홀 지하 (타운홀 주소: 333 Washington St, Brookline, MA 02445)

입장료: 무료 (누구나 참여 가능)

행사 일정

- 추모식 (오후 5시 ~ 6시)
- 리셉션 디너 (RSVP 방법: 하단 QR코드 스캔, 또는 이메일 info@waldenkorea.org 전화 617-849-8433) (오후 6시)
-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동백꽃 미술 & 공예 체험
- 동백꽃 수목화 전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참여)

제주43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간 지속된 3만 여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제주 4·3희생자추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제76회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배우고, 희생자들을 기리며, 집단적 트라우마에 대한 공감, 기억, 치유의 중요성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는 영어로 진행하나 한국어 안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후 리셉션 디너가 예정되어 있으며 RSVP를 기다립니다.

주최: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족회

주관: 월든 코리아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국제네트워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을 찾습니다.

제주4·3사건 고등학생 에세이 공모전 (마감 5월 30일)

Beyond Hallyu - Memory and Justice: Jeju 4.3 - Essay Contest

Are you interested in exploring modern Korean history? Join us for a one-hour, free event remembering the Jeju 4.3 Incident at the Korean Church in Brookline on Saturday, April 27th, at 5pm. Following this solemn remembrance, we encourage you to share your thoughts and insights by participating in our essay contest.

Deadline: **May 30th**

Rewards: All participants receive a special memento. The top 3 essays win additional prizes and scholarships.

Get details: Visit the information desk on event day (April 27).

Essay Guidelines - Your essay should address the following areas:

Unique Reflection (Essential):

Join us at the Boston Korean Church in Brookline (32 Harvard Ave) on April 27th, at 5 p.m. This free event includes dinner and is family-friendly. It's more than a commemoration; it's a chance to blend collective memories with your insights on the Jeju April 3rd Incident. For details, visit www.waldenkorea.org.

Collective Trauma Impact: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llective trauma, using academic research to support your findings.

Future Implications:

Consider how the Jeju April 3rd Incident influences today's society, attitudes, and reconciliation efforts.

Formatting

· Minimum 1,000 words in English · Double-spaced · 12-point Times New Roman font

For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info@waldenkorea.org

www.43jeju.com(한글) / www.WaldenKorea.org (English) / email: info@WaldenKorea.org / Tel: 617-849-8433

RSVP / Apply



Sponser



www.WaldenKorea.org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기복 심하거나 언어기능 저하... 5060 초로기 치매 신호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5060 초로기 치매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신경과 이은주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과거에는 치매를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분명한 뇌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에게 기억력을 비롯해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치매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이며, 그 외 루이체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등이 있다. 치매의 호발 연령은 65세 이후이며 85세 이상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65세 미만에서 발병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를 조발성(초로기) 치매라고 부른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60~64세 연령대 추정 치매환자수는 2만 453명이었다.

초로기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전두측두엽치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45~64세의 연령층이 전체 전두측두엽 치매 환자의 60%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노년기 알츠하이머 치매의 생존기간은 진단 후

평균 10년이지만 초로기 치매는 평균 6년의 생존기간을 보인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로기 치매의 원인질환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노년기 알츠하이머와 비교해 성격변화나 이상행동, 판단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첫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타나므로 치매를 의심하기 어려워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두정엽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침착이 두드러진다. 초로기 치매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감별할 때에는 가족성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성 알츠하이머 치매는 비가족성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보다 어린 연령에 발병하며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또한 두통, 보행장애, 경련 증상이 비가족성 알츠하이머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전두측두엽 치매는 평균 45세~65세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균 생존기간은 증상 시작부터 6~11년, 진단받은 때부터 3~4년으로 추정된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절제하고 일을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을 담당하는 전두엽, 측두엽의 앞쪽에서부터 진행되는 치매다. 이에 따라 기억력 저하보다 언어, 절제, 판단, 사고 기능의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기분변화를 보일 수 있다.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

문에 여러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PET-CT는 보통 암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게 되는데, 뇌의 형태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해 치매 진단에 활용되기도 한다. PET-CT는 몸의 대사 활동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PET과 몸의 구조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CT의 장점이 결합된 장비다.

PET-CT는 뇌의 각 부위가 포도당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뇌 세포들은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위별로 포도당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봄으로써 뇌세포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알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는 양측 옆쪽으로 뇌 세포의 활동이 떨어진 소견을 보인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뇌 앞쪽으로 뇌 세포들의 활동이 떨어진 소견을 볼 수 있다. 말기에는 대부분의 치매에서 뇌 전반적으로 활동이 떨어진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아밀로이드 PET-CT도 치매 진단에 사용된다. 뇌에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영상화해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다. 치매 환자에게서 아밀로이드 뇌 침착을 계량화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신경과 이은주과장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알츠하이머병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인지기능의 저

하를 더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치매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며, 이미 치매가 진행 중이어도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나이더라도 능숙하게 하던 일을 잘 못하거나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화가 쉽게 나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원인 질환을 감별해야 한다”며 “초로기 치매는 초기에는 뇌 위축이 경미해 정확한 진단이 힘든 경우도 있어 PET-CT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감정기복 심하거나 언어기능 저하...5060 초로기 치매 신호”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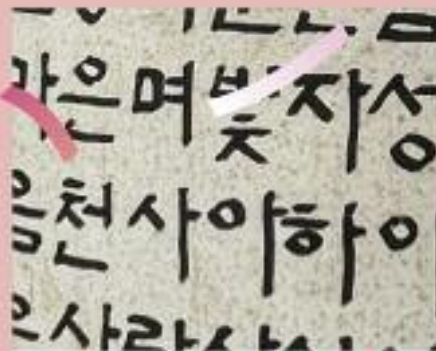
MAY 2024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Presents

Korean Family Month CELEBRATIONS

at the Concord Free Public Library



May 4-31

한글 서예 전시

(At Munroe Art Gallery)

한글 서예 전시 ✓

정성렬 및 제자들

May 4

리셉션, 서예 시연

2:00-3:00 pm
리셉션

3:00-4:00 pm
한글 워크샵
한글 서예 시연

May 18

어린이 프로그램

10:00am-12:00 pm
수묵화
색종이 접기
한글 이름 쓰기



12:00-1:00 pm
한국 장단 율동

May 25

사물놀이 공연

(At Library Lawn.
In case of rain at
Goodwin Forum)

3:00 - 4:00 pm
사물놀이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 ✓

More information at kcsboston.org

H MART × **NongHyup**

한국농협특판전

KOREA NONGHYUP SPECIAL SALE

APRIL 26TH - MAY 9TH,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Made with carefully selected ingredients that captures the fresh & authentic taste of Korea.



NONGHYUP
Korean White Rice
농협 한아름 쌀 22 LB

\$27.99



NONGHYUP
Scorched Rice
농협 보리누룻지/현미누룻지
BARLEY/BROWN RICE - 5.29 OZ

\$2.99



KWANGCHEON
NONGHYUP Roasted
Seaweed with Green Tea
광천농협 녹차 도시락김
0.14 OZ X 24 EA/BOX

\$8.99



KWANGCHEON
NONGHYUP Roasted
Green Tea Seaweed
광천농협 돌자반
1.76 OZ

\$1.99



NONGHYUP
Baked & Dried
Sweet Potato
농협 군고구마 말랭이
1.76 OZ X 3 EA/PKG

\$6.99



NONGHYUP
Peeled & Steamed
Chestnut
농협 달콤밤
1.83 OZ X 4 EA/PKG

\$8.99



NONGHYUP
Roasted
Peanut
농협 볶음땅콩
2.47 OZ X 4 EA/PKG

\$6.99



NONGHYUP
Puffed Rice Cake
Snack
농협 우리쌀 인절미 스낵
4.4 OZ

\$1.79



NONGHYUP
Puffed Black Bean
Rice Cake Snack
농협 검은콩 인절미 스낵
4.4 OZ

\$1.99



NONGHYUP
Fruit Drink
농협 생매실/제주감귤/배 주스
PLUM/JEJU MANDARIN/PEAR - 1.5 L

\$2.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Participation limited to select stores. Please verify with your local store prior to visi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일시: 2024년 5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 및 교실

- * 참가 신청: 글짓기 또는 손글씨 대회 중 1개만 선택/마감일: 2024년 4월 28일(일요일)
- * 참가비/1인: \$10 (NE회원교 한국학교 학생) / \$15 (비회원교/개인 참가)
- * 보내실 주소: 참가비는 학교단위로 보내시고 NAKS-NE Chapter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Sang Kang
P.O. Box 337
Billerica, MA 01821

- * 글짓기 및 손 글씨 제목 → 홈페이지 (www.naks-ne.org) 자료실 참조
- * 각 대회 감독/심사위원: 각 회원교에서 추천한 교사
- * 각 감독/심사위원 배정: 각 학년별 심사위원 2~3명, 감독교사 1~2명
- * 행사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2:00~2:30: 참가자 인원 점검 - 오후 2:30~3:00: 개회식, 감독/심사위원 소개 및 학년 별 교실 배정 안내 - 오후 3:00~4:00: 글짓기 대회 & 손글씨 자랑 대회 - 오후 4:10~4:30: 제 1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NE 지역 대표 선발 대회 - 오후 4:30 광고 및 폐회

* 수상자 발표: www.naks-ne.org *시상식은 5월 25일(토)에 가질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글짓기 & 손글씨 대회 안내

- *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Pre-Kinder~12학년
- * 시상 → Pre Kinder부터 12학년까지의 학년별로 시상
 - 🏆 Pre-Kinder는 참가자 전원 시상
 - 🏆 Kinder~12학년: 각 그룹별로 대상, 금, 은, 동, 입선상
 - 🏆 6~12학년 대상 중 최우수 학생은 주보스톤 총영사상 시상
 - 🏆 PK~5학년 대상 중 최우수 학생은 주보스톤 총영사상 시상
 - 🏆 각 학년 대상은 협의회장상 및 후원단체장상 시상

(2) 2024년 제 4회 '손글씨 자랑 대회' 안내 및 참가자격

- *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Pre-Kinder~12학년
- * 참가방법: 연령별로 다른 단어/문장을 보고 예쁘고 멋지게 손글씨로 써서 제출
- * 시상 → 참가자 모두에게 시상. 그룹별 가장 예쁘고 멋진 작품은 특별 시상

(3) 제1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뉴잉글랜드지역 대표 선발 대회 및 참가자격

- 2005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학생
-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NE 협의회 회원교 소속 재학생 (예외: 미국태생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새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 경우, 거주지 협의회에서 3년 미만을 살았더라도 참가자격 있음)
- 한국에서 정규교육(유치원 제외)을 1년 이상 받지 않은 학생
- 글짓기 대회(손글씨 대회 불인정) 참가 필수이며, 지난 대회 대상 수상했던 학생은 참가 불가
- 원고 제출 마감 및 파일 보낼 곳: 4월 28일 11:59 PM 까지 이메일 naks.ne.us@gmail.com
- 발표 시간 제한: 3~4분 정도 분량/3분 미만이거나 4분 초과 시 감점.
- NE 지역 대표로 선발되면, NAKS 학술대회 기간에 개최되는 본선 대회에 참가자격을 갖게 되며, 대상, 금상, 은상 등 상장과 상금을 받게 됩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NE Chapter

뉴잉글랜드 장애인 사역의 중심

 보스톤
밀알선교단

보스톤 밀알 에 초대합니다

밀알선교단은 1979년 시작된 크리스찬 장애인 선교단체로 후원과 봉사를 통해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 위한 예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 ❖ 사역 대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과 가족분들
- ❖ 사역자모집: 목회 사역자, 장애사역 전공자
- ❖ 봉사자모집: 차량 / 부엌 / 정리 및 청소 사역
찬양 / 악기 및 음악 사역
사진 / 홍보 / 체육 / 특활 / 수업 보조 / 인터넷 사역
변호사 / 회계사 사역
- ❖ 후원자모집: 재정 / 기도 / 재능 / 행사 후원

문의: 603.553.6955 밀알 보스톤지부